

과수재배지역의 생산유통체계와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

—청도군 놀미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의 작목반을 사례로—

우종현* · 박순호**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농업을 둘러싼 최악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생산유통상의 기술혁신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유지하고 있는 국지적 영농지역에 주목하여 사례지역의 생산유통체계 특성 및 기술혁신과 그 과정에서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역농업정책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인 놀미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영농조직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 그 자체는 철저하게 농가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별 농가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생산유통과정에서 농가단위로 채택/체화된 명시적/암묵적 지식이 내생적 영농조직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학습의 결과, 커뮤니티 단위의 기술혁신 창출-차별화/경쟁력 확보-개별 농가 소득증대-조합원간의 신뢰 강화에 기초한 영농조직의 활성화라는 순순환 고리가 형성됨으로서 경쟁력은 강화/유지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업정책은 과거의 개별 농가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한시적인 금융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이노베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농촌사회에 뿌리내려진 내생적 조직을 활성화하여 구성원간 네트워크의 강화로 집단학습과 실행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사회제도적 기반을 조성/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지식기반경제, 과수농업, 생산유통체계, 내생적 영농조직, 기술혁신

1. 머리말

오늘날 우리 사회는 WTO체제하의 급속한 세계 경제의 통합을 강력한 추동력으로 한 세계화로 인해 산업 부문 및 지역간 경쟁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고도 정보화를 기반으로 지식이 가장 핵심적 경쟁력의 요소인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Foray and Lundvall, 1996),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innovation)¹⁾에 의해서만 담보될 수 있다. 기업의 혁신활동은

고객, 기업간, 기업과 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지원기관간의 다양한 상호학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학습과정은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므로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제도적 근접성이 혁신과 상호학습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Lundvall, 1996). 이와 같이 지역은 이제 기업 및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회제도적 환경으로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은 지식창출 및 지속적인 학습원리를 채택(adopt)·체화(embody)하는 학습커뮤니티(learning region)가 되어야 한다(Florida, 1995).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강사(wjh8694@yahoo.co.kr)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전임강사(shpark@taegu-e.ac.kr)

한편 오늘날의 농업과 농촌도 이러한 거대한 물결을 비켜갈 수는 없으며, 산업화이후 우리 나라에서 농업의 지위가 하락하고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²⁾. 비록 우리 나라의 경우 농업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최우선적 산업으로 그 역할을 수행함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농업은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 주체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도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한 한국 경제의 성장은 농업과 농촌의 희생에 강요해 왔고,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1993년 UR협상의 타결로 한국 농업도 세계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일환으로 편입됨으로서 이제 한국의 농업은 최소한의 보호막도 상실한 채 거대한 자본과 기업적 영농체계를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기업과의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와 영농 상업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자급적 농업보다는 채소와 과수재배 중심의 상업적 농업 및 농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농가 및 농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변화 외에도 특히 과수 및 채소 등의 상업적 농업은 재배 작물의 다각화와 품질의 고급화로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강요받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품작물은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연결되는 유통과정이 경쟁력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규모 점포의 확산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시장구조에서 생산자의 지위는 약화되었고(김기혁 역, 1999), 그 결과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나 소비자와의 직거래 등 농산물 유통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구조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농업도 세계자본주의 생산체제에 편입된 이상 수입농산물의 증대와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자는 질적인 면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브랜드화 함으로서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대규모 유통조직과의 거래는 상품의 질뿐만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경영규모가 영세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지역단위의 상품 규격화와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로도모해야 하며, 제도적 환경으로서의 지역, 즉 학습 지역화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농업, 특히 지역농업에 대해서는 “기술발전과 제도의 진화적 과정에 관심을 두어 기업의 혁신과정을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도와 적극적으로 연관시켜 분석”(박경 외, 2000)하는 진화론적 경제학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는 거의 무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마치 농업과 식량생산에 있어서는 혁신과 지식의 적용이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Morgan and Murdoch, 2000). 그러나 최근 우리 나라 지역농업의 실태를 볼 때 최악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내생적 영농조직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상의 기술혁신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 유지하고 있는 국지적 영농지역이 존립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지적 영농지역의 경쟁력을 창출하고 유지시키는 메카니즘을 밝히고, 나아가서 지역농업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과수재배 지역을 사례로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과 그 과정에서의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의 지역농업정책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역은 청도군 화양읍 놀미리 복숭아 생산지역이며 조사대상은 지역 영농조직인 작목반원으로 한정하고, 개별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을 개별 농가의 경영주로 한 것은 농업경영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동시에 집단학습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기술혁신 창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2001년 7월 말 현재 놀미리의 복숭아 작목반은 명부상 41가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경영주의 사망 혹은 이주에 따라 실질적인 작목반원은 36가구이다. 이 중에서 분석대상은 25 농가이며, 분석 비대상농가 11가구는 경영주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누락이 심한 농가로 경영주가 40대와 50대의 각 1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60대이다. 60대 농가의 응답을

이 낮은 것은 현재 와병 중이거나 노동력 부족 때문에 작목반원이기는 하나 생산량이 극히 적은 관계로 면담조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현지조사는 2001년 6월 18일의 예비조사를 거쳐 23일 본 조사를 실시³⁾하였으며, 8월 13일 및 23일부터 24일에 걸쳐서는 집단학습조직인 작목반에 대해 작목반장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농업경영 특성과 생산유통체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과 혁신 창출과정에서의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2. 사례지역 개관 및 경영특성

1) 사례지역 선정이유 및 개관

본 연구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놀미리(訥彌里)를 사례지역으로 하였다. 놀미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북송아 산지로 전국적으로 이미 알려진 청도군 내에서도 품질과 유통 면에서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하여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 과정에서 개별농가 수준이 아닌 집단학습조직(collective learning organization)인 작목반이 군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기술혁신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지역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도군의 북부에 위치하여 화양읍 유동리를 경유하는 지방도에 의해 대구광역시와 연결되는데, 최근 팔조령 터널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지형적으로는 청도 선상지의 선단부분에 위치하여 대체로 평탄하며⁴⁾ 마을을 중심으로 사방이 사질양토인 들판으로 둘러져 있고 북쪽으로는 청도천에 접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 지석묘가 남아 있는 사실로 볼 때 마을의 형성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의 마을은 임진왜란 후인 1600년대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청도문화원, 1996). 한편

그림 1. 사례지역 지형도(1 : 25,000)

과수재배지역의 생산유통체계와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

새로운 기술혁신 창출기반으로서의 내생적 영농조직의 활동에 유리할 수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동족촌의 성격은 미약하다.

2001년 6월 말 현재 104가구 28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비농가가 1할을 넘고 있으며 인구 구성 면에서는 여성인구가 149명으로 더 많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논이 64.9%로 가장 많은 반면 임야는 0.1%로 극히 미약하여, 임야가 66.4%를 차지하는 화양읍의 일반적 특징과는 차이가 있다⁵⁾.

한편 청도군의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경상북도의 농가당 평균규모에 미달한다⁶⁾. 그러나 복숭아 재배 농가율과 재배 면적율에서 청도군은 경상북도 복숭아 재배 농가의 30.9%, 복숭아 재배 면적의 3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양읍은 청도군 복숭아 재배 농가의 24.6%, 재배 면적의 31.7%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화양읍 전체 농가의 70% 정도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놀미리는 복숭아 재배 면적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나 유통 면에서도 군내의 타 지역과는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 농업경영특성

먼저 경영주의 속성을 살펴보면(표 1), 경영주의 연령이 노령화될수록 평균 영농 지속기간도 길게 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 70대 경영주의 영농 지속기간이 60대 경영주보다 더 짧은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 후 18년 전 처가 동네인 사

례지역으로 이주한 74세 경영주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기간을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경영주는 20세 이전부터 영농활동에 종사하였으며,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적이 있는 경영주는 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년층에서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경우가 우세한데, 이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⁷⁾ 상업적 과수작물 재배가 미약했던 시절에는 현지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주곡작물 재배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전직한 반면, 50세 이전의 젊은 경영주는 상업적 작물로서 복숭아의 재배가 우세했던 1970년대 이후 가업이었던 농업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경영주 연령에 따른 고향여부에서 40대 이하의 젊은 경영주는 모두가 사례지역이 고향인 반면 50세 이상 경영주는 연령이 노령화할수록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경향이 강하다. 이는 산업화 이전에는 도시의 산업부문에 대한 취업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영농조건이 열악한 농업지역에서 영농조건이 보다 유리한 농업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된 반면, 산업화 이후에는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에서 다른 농촌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우세했음을 반영하는데⁸⁾, 결과적으로 정착과정 상에 중요한 신기술의 도입과 체화에 있어서 유리한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평균 가구원 수는 경영주의 연령이 노령화될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 노동력 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자녀가 모두 출가한 후

표 1. 경영주 연령별 속성

연령	구분	가구수	평균 영농기간	고향여부*	전직여부**	평균 가구원 수	평균 재촌 가구원 수	평균 농업 노동력 수
30대		1	10.0	0	0	7.0	7.0	2.0
40대		6	24.2	0	1	4.7	4.3	2.2
50대		11	35.6	2	0	4.7	3.6	1.9
60대		5	42.0	1	2	2.6	2.4	2.0
70대		2	34.0	2	1	2.0	2.0	2.0
계(평균)		25	(29.2)	5	4	(4.2)	(3.9)	(2.0)

* 고향이 놀미리 이외 지역인 경영주 수

**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경영주 수

농업은 노년층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며, 단순한 노동력 노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결정적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역으로 보면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없이는 현재의 농업과 농촌정책이 공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농업과 농업정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나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중심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의 주체인 이노베이터를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체들간, 주체와 지원기관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정보와 지식을 도입하고 학습하여 적용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는 학습지역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제도환경 구축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토지 소유관계에 따른 경영형태를 보면 <표 2>와 같다. 임차농지가 전혀 없는 순수 자경농가가 13가구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자경과 더불어 농지의 일부를 임차하는 농가가 10가구이다. 반면에 순수 임차 농가와 자경하면서 소유 농지 중 일부를 임대하는 농가는 각각 한 가구인데, 경영주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있다. 순수 자경농가는 전체 연령층에 걸쳐 분포하지만 농지의 일부라도 임차하는 농가는 50대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농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된다.

표 2. 경영주 연령별 경영형태

경영형태 연령	순수 자경	자경 및 임차	자경 및 임대	순수 임차	계
30대	1	-	-	-	1
40대	3	3	-	-	6
50대	3	7	-	1	11
60대	4	-	1	-	5
70대	2	-	-	-	2
계	13	10	1	1	25

이와 같은 경영주 연령에 따른 경영형태의 차이는 가계지출을 포함하는 농가의 내부적 사정을 반영하면서 노동력의 양적 차이보다는 경영주의 연령을 고려한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사례지역

내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노동력에 의존하지만 50대 이하의 경영주는 그 이상의 경영주와는 달리 자녀가 취학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계지출의 부담이 커서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경영규모의 확대를 도모한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가계지출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농지 임차에 의한 적극적인 경영규모 확대의사가 미약하며, 노동력 노령화에 따른 질적 악화 때문에 소유 농지만을 자경하거나 불가피하게 임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리고 농가의 경영규모를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표 3), 임차농가율(44.0%)과 임차경지율(25.4%)은 1990년 우리 나라 전체의 임차농가율(42.8%) 및 임차경지율(27.9%)과 큰 차이가 없다. 전체 경영규모 중에서 미작은 26.2%에 불과하여 과수재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과수재배 중에서도 특히 복숭아는 전체 경영규모의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형태에 따라 자경지와 임차지간의 재배작물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자경지는 복숭아 재배(61.9%)가 특히 우세한 반면 미작재배는 15.6%에 불과하여 복숭아를 제외한 다른 과수재배 면적(22.5%)보다도 오히려 적다. 그러나 임차지의 경우는 미작재배가 절반을 훨씬 넘고 있으며, 복숭아를 제외한 다른 과수 재배면적은 5.5%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임차지에서 과수재배가 미약한 이유는 임차지의 경우 영농지속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년생인 과수재배를 기피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또한 과수재배는 농가 소득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경영주의 사망이나 이농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촌하면서 임대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⁹⁾이다.

한편 특화된 복숭아 이외의 과수재배도 전체의 18.2%나 되는데, 특히 자경지의 경우 현저하다. 이는 사례지역이 사과재배지로 오랜 역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의 사과재배지가 잔존할 뿐만 아니라, 단일 작물재배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노동력 투입이 적은 대추나 감나무의 재배지를 확대하였기 때문¹⁰⁾이다. 그러나 최근 사례지역의 복숭아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과수재배지역의 생산유통체계와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

표 3. 소유형태별 경영규모

(단위 : 평, %)

구분 연령	자경지				임차지				경영규모			
	복숭아	기타과수	미작	소계	복숭아	기타과수	미작	소계	복숭아	기타과수	미작	계
30대	2,000	1,500	0	3,500	0	0	0	0	2,000	1,500	0	3,500
40대	13,100	3,512	2,200	18,812	2,000	0	5,100	7,100	15,100	3,512	7,300	25,912
50대	14,400	7,500	4,900	26,800	6,800	1,300	8,500	16,600	21,200	8,800	13,400	43,400
60대	11,742	2,700	3,200	17,642	0	0	0	0	11,742	2,700	3,200	17,642
70대	1,788	426	517	2,731	0	0	0	0	1,788	426	517	2,731
계	43,030 (61.9)	15,638 (22.5)	10,817 (15.6)	69,485 (100.0)	8,800 (37.1)	1,300 (5.5)	13,600 (57.4)	23,700 (100.0)	51,830 (55.6)	16,938 (18.2)	24,417 (26.2)	93,185 (100.0)

마지막으로 작부체계 특성을 보면(표 4), 복숭아와 다른 과수를 재배하면서 동시에 미작 재배를 겸하는 농가가 15가구로 전체의 6할을 차지한다. 반면 다른 작물의 재배 없이 복숭아만 단일 재배하는 농가는 2가구이고, 복숭아와 더불어 다른 과수를 재배하면서 미작 재배는 없는 농가가 6가구이다. 이와 같이 전체의 약 7할에 이르는 농가가 과수재배를 특화하면서도 미작재배를 병행하는 것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곡의 자급을 중시하는 현재의 농촌 현실을 반영한다.

경영주의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재배 작물의 다각화가 현저하며, 상대적으로 노년층에서 과수재배와 더불어 미작재배를 겸하는 경향이 강하다. 젊은 경영주가 미작재배 없이 과수재배에 특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들 연령층의 경우 농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소득증대에 우선적 목표를 둠으로서 부족한 노동력을 고려하여 미작재배보다는 과수재배를 선호하기 때문¹¹⁾이다. 반면 상대

적으로 노년층에서 미작재배를 겸하는 농가가 우세한 것은 농가 소득 증대가 중요한 목적일지라도 농업을 유지하는 이상 주곡은 자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¹²⁾이다.

3. 생산 및 유통체계

1) 복숭아 특화산지로의 발달과정

현재의 생산 및 유통체계를 고찰하기 전에 사례지역의 복숭아 재배지역으로서의 발달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혁신을 살펴보기로 한다. 청도지역의 복숭아 재배는 약 200년 전부터 화양읍 신봉리(홍도골)에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홍도골 복숭아의 품종 개량을 통하여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군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늘미리에서는 현재의 늘미리 복숭아 작목반장이 1966년 600평의 복숭아 재배를 시작한 후 오늘에 이른다¹³⁾.

표 4. 경영주 연령별 작부체계

작부체계 연령	복숭아 단일재배	복숭아+기타과수	복숭아+기타과수+미작	복숭아+미작	계
30대	-	1	-	-	1
40대	1	2	1	2	6
50대	-	1	10	-	11
60대	-	2	3	-	5
70대	1	-	1	-	2
계(평균)	2	6	15	2	25

지형적으로 산지였던 홍도골과는 달리 놀미리는 대체로 평야지역으로, 복숭아 재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작농업과 함께 일본인에 의해 청도천 주변을 중심으로 사과재배가 성하였다. 당시 놀미리의 사과재배 면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홍옥과 국광을 중심으로 1950년대 청도군내 최고의 소득작목이었다.

<표 5>는 현재 놀미리 지역 복숭아 과수원의

부란병으로 사과재배가 위축되면서 대체 수종으로 이 지역의 특화작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복숭아 재배가 선택된 결과이다. 임야에서의 전용은 절대면적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1990년대 이후는 전혀 없다. 이는 주곡 생산을 위주로 하며 농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농조건이 불리한 임야를 개간해서라도 경지를 확대하고자 했던 과거와는 달리 1970

표 5. 복숭아 과수원의 시기별 토지이용 변화

(단위 : 평, %)

복숭아 식재시기 식재전 토지이용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논	2,570(10.8) (56.2)	3,000(12.5) (34.6)	8,700(36.4) (39.8)	9,620(40.3) (57.5)	23,890(100.0) (46.1)
과수원	- (0.0) (0.0)	3,360(15.5) (38.8)	11,180(51.7) (51.1)	7,100(32.8) (42.5)	21,640(100.0) (41.7)
임야	2,000(31.7) (43.8)	2,300(36.6) (26.6)	2,000(31.7) (9.1)	- (0.0) (0.0)	6,300(100.0) (12.2)
계	4,570(8.8) (100.0)	8,660(16.7) (100.0)	21,880(42.2) (100.0)	16,720(32.3) (100.0)	51,830(100.0) (100.0)

시기별 토지이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의 복숭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1970년 이전의 복숭아 재배 면적은 8.8%에 불과하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복숭아 재배지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조성된 복숭아 과수원 면적이 전체의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화/산업화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로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수요증대의 결과를 반영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논과 사과 과수원에서 복숭아 과수원으로의 전용이 특히 우세하며,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야에서 복숭아 과수원으로의 전용은 12%에 불과하다.

시기별로는 1960년대에 조성된 복숭아 과수원은 논과 임야에서의 전용이며, 그 이후에는 임야에서의 전용이 크게 감소한 반면, 논과 복숭아 이외의 과수원(대부분이 사과)에서 복숭아 과수원으로의 전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복숭아 이외의 과수원이 복숭아 과수원으로 전용된 것은 일제시대에 조성되었던 사과나무의 수령 고령화와

년대 이후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업노동력이 부족했고 따라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지보다는 평지에 과수원을 조성했던 경향¹⁴⁾을 반영한다. 이에 비해 1970년대 이후, 특히 최근 들어 논에서 복숭아 과수원으로의 전용이 많은 것은 수익성이 미작재배보다 높은 과수재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숭아의 품종에 있어서 1980년대까지는 '대백도'나 '창방조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대백도'는 저장성이 약하며 '창방조생'은 수확기가 장마기간인 7월 초순이므로 상품의 품질저하와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내생적 주민조직으로서 1984년에 결성된 작목반에서는 저장성에서 이점이 있고 출하시기가 8월 중순 이후인 '미백도'로 대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1992년부터는 작목반 조직 내에서 생산과정의 기술혁신을 초월하여 출하 과정의 공동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이전의 출하과정이 개별 농가의 품질관리로 이루어진데 비해 1992년 이후에는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선과기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켰으며, 결과적으로

1993년에 경상북도 복숭아 품질인증 제1호를 획득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상품 차별화가 가능하였다. 이상의 발달과정을 통하여 본 사례지역은 청도군 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지닌 복숭아 특화 재배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생산 및 유통체계

눌미리 지역의 생산유통체계는 기본적으로 개별 농가 단위로 생산된 복숭아는 전량 작목반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처리장(‘눌미 과수포장 공동작업장’)에 집하(集荷)되고 이곳에서 공동으로 선과(選果) 및 포장 과정을 거쳐 출하(出荷)됨으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된다. 즉 복숭아의 생산 및 집하는 개별농가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선과 및 포장 작업 그리고 출하는 작목반 공동의 고유 브랜드(‘눌미리 복숭아’)로 이루어지고 있다.

(1) 복숭아 생산과정

사례지역의 복숭아 수확은 묘목을 식재한 후 5년에서 15년까지가 최성기인데, 묘목은 봄에 씨앗을 파종하여 그 해 여름에 눈 접붙이기 한 후 이듬해 이식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이러한 접붙이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지만 이 지역에서 복숭아의 접붙이기 기술은 이미 암묵적 지식으로 체화되어 보편화되어 있다. 이것이 적기에 우량 묘목의 수급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는 품질개선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연간 복숭아 생산 노동과정은 겨울부터 3월초까지의 가지치기를 거쳐, 3월말까지는 거름주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주로 가족노동력에 의존한다. 4월 중순경에 꽃이 만개하며 대과(大果) 생산이나 기후가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연수정에 의존하고 있다. 5월초에 실시되는 적과작업(열매숙기작업)은 복숭아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며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하된다. 그러나 이 작업은 명시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특성까지도 고려하여야 하고, 모든 재배농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앗이 등을 통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주로 가족노동

력에 의존하고 있다. 매년 병충해 방제를 위해 조생종은 약 5회, 만생종은 약 10회 정도의 농약살포가 이루어지는데, 농약살포는 농약 잔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최소한 출하 15일 내지 20일 이전에 끝나게 된다. 이와 같은 농약살포 규정은 비록 생산이 개별 농가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동브랜드로 출하되기 때문에 조합원간의 신뢰관계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이윤추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공동의 규범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일반 과수 생산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봉지씌우기는 과일의 미관 유지와 잔류 농약의 최소화에는 장점이 있지만 당도가 낮아진다는 약점 때문에 사례지역 내에서는 미약하며, 대신 농약 살포 회수의 최소화와 최종 농약살포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으로 대체함으로써 품질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눌미리 지역의 복숭아 출하시기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6월 20일 경부터 조생종의 출하를 시작하여 만생종은 9월 20일 경까지 이어진다. 출하 시기나 출하량에 대한 의사 결정과 수확 작업 및 공동작업장까지의 운반도 역시 개별 농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하를 위한 복숭아의 수확은 대체로 출하 당일 새벽부터 오전 중에 이루어지지만, 출하 물량이 많을 경우 전날 오후나 저녁부터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복숭아는 타 과일에 비해 저장성이 매우 약한 관계로 수확에서 소비까지의 기간이 품질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농가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출하하기보다는 출하회수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물량확보와 수송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동출하가 필수적이다. 즉 복숭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숭아 품질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출하가 가능한 유통체계의 확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성원간의 신뢰에 기초한 자생적 조직이라는 제도적 기반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확작업은 그 시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농가별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품앗이가 이용되기도 한다. 이때 임금노동력보다 품앗이에 의존하는 것

은 작업의 성격상 어느 정도 기술적인 숙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외지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생산과정상의 영농비 지출내역¹⁵⁾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

(2) 유통체계

본 사례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판매유통체계는 공동출하장에 집하된 복숭아의 선과 및 포장작업을 비롯한 출하과정에서 시작하여 -중간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전화 주문과 택배체제 외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직전 판매처까지의 유통과정까지로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통체계는 생산과정과는 달리 작목반이라는 내생적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공동작업과 협업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개별 농가별로 집하된 복숭아의 선과 및 포장작업은 공동작업장('농미 과수포장 공동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작업장은 출하과정에서의 공동작업을 목적으로 1992년 작목반 자체 경비로 신축하였으며, 이후 1998년도에는 군비지원과 작목반 자체조달을 절반씩으로 하여 증축하였다. 공동작업장 내에는 2대의 선과기가 가동 중인데 복숭아의 크기(무게)를 8등급과 10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당도나 색상 등 질적인 면에서의 선과는 육안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과상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출하한 과일에 대한 선과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상품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실시된다. 따라서 선과자의 주관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되는 색상이나 상과(傷果)의 판단여부는 출하과정에서 초기에는 회원간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엄격한 선과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요인이며, 이것은 결국 농가의 이익 보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¹⁶⁾.

상품의 포장은 1980년대까지는 23kg들이 나무상자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골판지 상자 포장이며 5kg과 15kg 포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포장 규모는 상품의 크기와 상품성 및 출하 대상지역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다. 5kg 포장의 경우 16개 이하의 특품과 23개까지의 상품으로 출하되며 이는 주로 백화점으로 납품한다. 15kg 포장은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낮으며 대부분은 부산의 청과 도매상으로 출하된다. 그외 傷果나 落果를 포함하는 하품은 20kg 들이 컨테이너(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포장으로 전문 중간 상인을 통해 출하된다.

즉 상품성이 낮을수록 포장 단위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포장 단위 차별화의 주된 요인은 판매가격에 대한 수송비 비율의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포장 단위가 작아진 것은 소비자들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규모의 축소와 구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따른 생과(生果) 일반에 대한 소량 구매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상품의 저장성이 약한 복숭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상과나 낙과를 제외하고는 전량 생과로 소비될 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의 포장으로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고, 또 이것이 오히려 경쟁력 강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순순환관계의 결과이다.

사례지역에서 출하량이 가장 많고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5kg 들이 포장의 경우 상자당 포장지 가격이 800원이며, 과일의 위치를 고정하는 난자가 60원으로 상자당 포장비용이 상당하지만 오히려 판매 가격대비 포장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선호도가 가장 높다. 포장상자의 구입은 공동구매이지만 비용은 개별 농가가 부담하며, 선과기 이용에 따른 전기세는 작목반 운영경비로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선과 및 포장작업은 당일 출하하는 작목반원들의 상호부조와 협동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인건비 지출은 없다.

이상과 같이 포장과정이 끝난 상품의 유통경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면서 작목반이 직접 운반을 책임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되며, 청도군 내 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두 판매와 같이 현지에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생산자가 백화점 물류 창고로 운송한 후 백화점이

나 백화점 직영 슈퍼마켓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로와 청과 도매상(공판장)의 경매를 거쳐 도·소매상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로로 다시 나누어진다.

먼저 현재 놀미리 복숭아 전체 유통량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백화점이나 그 직영 슈퍼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1993년 엄격한 품질관리와 저농약 재배로 “경상북도 복숭아 품질인증 제 1호”를 획득한 “놀미리 복숭아”는 고유 브랜드로 1994년부터 대구광역시에 거점을 두고 있는 D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5kg 포장이 백화점을 통한 판매량의 60%를 차지하며, 그 외 40%는 15kg들이 포장으로 납품된 후 매장에서 벌크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2000년까지는 생산자와 백화점이 운송비를 절반씩 분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전액 생산자 부담이며 물류 창고까지의 운송 책임도 작목반이 담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품의 선별과정이 엄격하고 운송조건이 불리하지만 공판장의 경매를 통하는 경우보다 약 15% 정도의 높은 가격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백화점 출하를 선호하고 있다. 작목반 총무의 업무추진비와 운송비, 선과기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작목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하여 백화점 출하 복숭아에 대해서는 상자당 500원을 가출하고 있다. 또한 일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작목반원이 직접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위한 시식회를 통한 판촉행사를 갖고 있다.

둘째, 공판장의 경매를 통해 도·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로는 백화점을 통한 유통체계가 개척되지 못했던 1994년 이전에는 가장 핵심

적인 유통체계이었으나 현재는 전체 복숭아 유통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당시의 출하대상 공판장은 서울과 부산으로의 출하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전량 부산에 소재한 공판장의 경매를 통해 출하되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 청도군에도 5개의 공판장(현재는 3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도군의 공판장보다는 원거리이지만 대도시 공판장으로 출하한 것은, 놀미리 복숭아가 품질 면에서 청도군 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복숭아보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청도군내의 공판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타 지역 복숭아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매를 하였기 때문에 활성화된 작목반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공판장으로 출하하였다. 현재 청도군 내 타 지역의 경우는 여전히 군내 혹은 대도시에 위치한 공판장을 통해 출하하는 유통체계가 중심이며, 사례지역만이 백화점으로 출하하고 있다. 사례지역에서 대도시 공판장을 통해 출하하는 경우 운송비는 생산자가 부담하지만 공판장이 원거리인 관계로 백화점 납품과는 달리 작목반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운송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외지의 도매상이나 수집상이 현지를 방문하여 구매하는 경우 생산자는 운송비와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유통 경로는 해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유통량의 5% 정도이며 대체로 상품성이 낮은 복숭아가 그 대상인데, 경상남도 진영에 거주하는 도매상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매수 후 소매상에 공급하거나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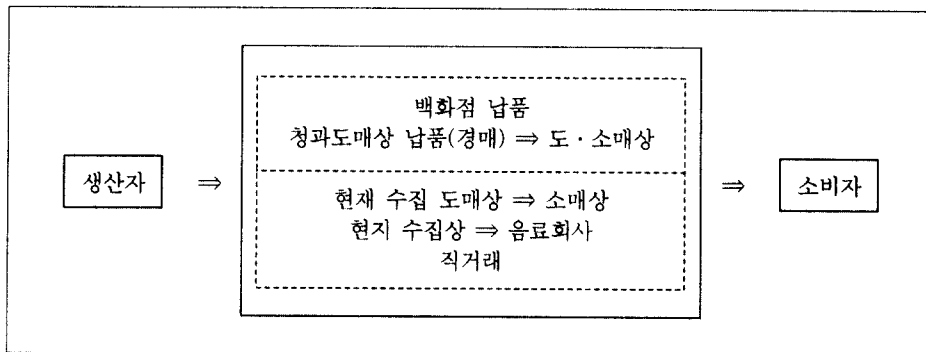


그림 2. 복숭아 유통 경로

다. 이때 복숭아의 현지 판매가격은 상품(上品) 가격의 1/5 이하 수준이지만 대금 결제가 당일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落果나 傷果를 포함하여 생과로서의 상품성이 극히 낮은 복숭아는 수집상을 통해 음료 제조용으로 출하된다. 이러한 수집상은 마을 단위 수집상과 읍·면 단위 수집상, 군 단위 수집상으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음료 회사의 제조 공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음료 제조용 복숭아는 20kg 들이 한 컨테이너 당 2,000원 정도에 거래되므로 상품(上品) 가격의 1/20 이하 수준인데, 상품(商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처분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거래대금은 역시 당일 현금 결제된다.

한편 사례지역에서는 현재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대형 할인매장과 납품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99년부터는 중간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 주문을 받아 택배를 통하여 판매하는 소위 '전자상거래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과 상품 정보를 입수한 소비자가 전화 주문을 한 후 대금을 개별 농가의 계좌에 입금시키면, 개별농가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택배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배달시키고 있다. 이때 배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상품의 가격은 당일의 출하가격이 기준이 된다. 현재 놀미리 복숭아 작목반이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유통체계를 통한 판매량은 연간 100상자 미만으로 극히 미약하다. 그러나 상품을 주문 받은 개별농가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산자로서의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는 내생적 영농조직의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영농조직인 작목반 차원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이것은 결코 특혜가 아니며 타 지역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 동시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장래의 농업정책에서 볼 때 혁신적 지식의 축적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4. 과수재배 커뮤니티 경쟁우위의 근원으로서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

이 지역이 "놀미리 복숭아"라는 고유 브랜드로 차별화된 과수재배 특화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적 요인으로는 농작물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변화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혁신자(innovator)와 기존의 사과재배 과정에서 지역에 축적되고 뿌리내려진 암묵적 지식(tacit or context-dependent knowledge)¹⁷⁾, 그리고 혁신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의 규범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내생적 영농조직(endogenous farming organization)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마을 전체가 농가간의 네트워크로 집단학습과 실행을 통하여 하나의 커뮤니티로 대응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기반이 바로 내생적 영농조직인 "놀미리 복숭아 작목회"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생산과 유통체계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내생적 영농조직인 '놀미 복숭아 작목회'의 개요

이 지역의 내생적 영농조직인 '놀미 복숭아 작목회'는 복숭아 작목반으로서는 청도군 내에서 최초로 1984년에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마을 단위의 자생적 영농조직이다. 물론 지역영농조직의 하나인 작목반이 사례지역만의 고유한 조직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화 이후 상업적 작물의 재배가 증가하면서 재배작물별로 작목반이 태동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그 수가 급증하면서 현재 경상북도에만 해도 약 3,500여 개의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례지역의 작목반은 농협으로부터 자금지원이나 상품판매 등의 간접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된 여타의 작목반과는 달리, 작물재배 방법에서의 신기술 도입 및 상품 출하과정에서의 상호부조와 협력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내생적 영농조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84년 19가구로 결성된 작목반은 현재 명부상 4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영주의 사망 혹은 이

주에 따라 실제로는 36가구가 활동 중이며, 이들 중 10여 농가는 경영주의 노령으로 출하량이 적어서 작목반 활동이 미약하다.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25 농가 경영주가 작목반원으로 입회할 당시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 2명, 30대 9명, 40대 10명, 50대 3명, 60대 1명으로 나타나서 조사 대상 농가의 8할 이상이 경영주가 50세 미만에서 작목반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60대 이후에 작목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1농가도 사례지역에서 복숭아 재배가 활성화된 이후인 1990년대 이후에 가입한 경영주이다.

성문화된 작목반 규약(‘놀이 복숭아 작목회 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규약상 작목반의 목적을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신 영농기술의 도입, 공동포장과 공동판매 등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회원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으로 명기하고 있다. 조직 구성은 ‘작목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 1인과 ‘회의록 기록 및 회계사항을 담당’하는 총무 2명, ‘회계 및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하는 감사 2명 및 3명의 운영위원과 평회원으로 구성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평회원 중에서 선출되는데, 다른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2명의 총무에게는 각각 연간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임원의 수당(총무 활동비)과 영농기술 도입을 위한 비용(선진지 견학, 기술강습회, 서적구입 등) 및 공동 이용사업(판매촉진 홍보, 공동작업장 운영과 보수)에 드는 비용은 회원의 가입비와 찬조금 외에 주로 백화점으로 출하할 때의 각출금으로 충당된다. 회원의 입회 자격은 ‘놀이미리에 거주하면서 복숭아 과수재배를 경영하고 작목회의 사업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임원회의의 자격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자격의 상실은 본인의 자발적 탈퇴 및 회원자격의 상실이나 사망과 재명 등에 의한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로 회원 자격의 획득과 상실은 형식상의 과정이며 가입과 탈퇴 여부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상의 작목반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놀이 복숭아 작목회’ 조직은 구성원간의 이익관계만을 전제로 한 완전한 이익집단조직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하나의 전통적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형성된 구성

원의 자격이나 역할, 심지어는 목적과 운영도 매우 느슨한 커뮤니티에 기초한 내생적 조직(community-based endogenous organization)으로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규범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상호간의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혁신창출에 있어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소위 지역에 뿌리내려진 일종의 실행커뮤니티(Communities of practic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Lee, 2001).

2)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에 있어서의 영농조직의 역할

물론 농가단위에서의 농산물 생산과정은 선택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명공학의 놀랄만한 발전과 초국적 기업의 세계농산물 시장 장악 등으로 이제 농업부문이 생산이나 유통 면에서 지식산업화와 세계화의 핵심부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농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개선과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지식-명시적, 암묵적 지식이든- 이 경영의 핵심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지식은 조직의 한 형태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산되고 재생산되는 한편, 조직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함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이다(Morgan and Murdoch, 2000). 따라서 영농조직의 역할에 대한 분석도 이러한 분석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영농조직이 어떤 지식을 어떻게 학습/생산하여 기술혁신을 창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연계되느냐가 영농조직의 존립기반인 동시에 역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농조직의 존립기반과 역할은 생산요소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생산비 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 및 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품질의 개선에 기초한 차별화이다. 그렇다면 어느 과정에서 어떤 기술혁신이 어떻게

창출되었으며, 영농조직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복숭아 품질향상은 궁극적으로는 농가단위로 암묵적 지식에 기초한 점진적 기술혁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 과수재배지역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름 아닌 내생적 영농조직을 매개로 농가단위가 아닌 영농조직 전체의 표준적 품질향상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쟁의 원리가 아닌 내생적 영농조직 구성원간의 신뢰에 기초한 협력 원리의 작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접붙이기의 경우, 이 기술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청도군 타 지역에서도 암묵적 지식으로 체화되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접붙이기술 우량목을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개별농가 수준이 아닌 조합원 전체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적기에 확실한 우량묘목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점이 궁극적으로는 영농조직 단위의 품질개선과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의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리가 거름 만들기 및 시비 및 방제, 복숭아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과(열매숙기)기술 및 실제 작업 나아가서는 수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다. 그 결과 커뮤니티 단위에서 품질의 상향적 표준화를 이루었으며, “경상북도 복숭아 품질인증 제1호”라는 품질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놀이리 복숭아”라는 고유 브랜드화에 성공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유통과정에서 영농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복숭아는 타 과일에 비해 저장성이 매우 약한 특성상 복숭아 자체 품질뿐만 아니라 수확에서 소비까지의 유통체계가 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생과 판매로 차별화에 성공하였다는 면에 있어서는 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통체계상의 대표적인 기술혁신으로는, 생산과정상의 혁신을 기초하여 백화점 납품이라는 고부가가치 상품중심의 판로 개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최상급 상품의 최소한의 물량확보라는 필수 조건과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과와 포장에 전제된 공동출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한 선과기의 도입과 당도나 색상 등 질적인 면에서의 선과에 대한 암묵적 지식의 명시적 지식화를 위하여 “선과 과정에서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출하한 과일에 대한 선과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규범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영농조직의 핵심적 역할이다. 그 외 시식회를 통한 홍보 및 판촉행사, 유통체계의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판로개척 등으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은 경쟁관계의 소규모 개별농가 단위로서는 불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놀이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가 청도군 내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영농조직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생산 그 자체는 철저하게 농가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별 농가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농가단위로 채택/체화된 명시적/암묵적 지식이 내생적 영농조직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학습의 결과, 커뮤니티 단위의 기술혁신 창출-차별화/경쟁력 확보-개별 농가 소득증대-조합원간의 신뢰 강화에 기초한 영농조직의 활성화라는 순순환 고리가 형성됨으로서 경쟁력은 강화/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역농업/농촌의 연구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농업/농촌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비껴갈 수는 없다. 즉 우리 나라의 소규모 지역농업/농촌도 세계자본주의 생산체제에 편입된 이상, 수입농산물의 증대와 소비자 기호의 고급화·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영을 전제로 한 지역단위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우리 나라 지역농업을 둘러싼 최악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영농조직을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통하여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유지하고 있는 국지적 영농지역이 존립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나아가서 이제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이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첫째, 지역농업/농촌에 대한 연구에서도 “기술발전과 제도의 진화적 과정에 관심을 두어 집단/기업의 광의의 기술혁신과정을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도와 적극적으로 연관시켜 분석”하는 제도/진화론적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원용하여, 농업이라는 경제현상과 지역사회라는 사회현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사회경제지리학적 분석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국지적 영농지역의 경쟁력 창출/유지 메커니즘을 밝히고, 지역농업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입안자들도 산업사회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정책수립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놀미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가 청도군 내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핵심적 요인은 지역사회라는 커뮤니티 단위의 내생적 영농조직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임이 밝혀졌다. 즉 생산 그 자체는 철저하게 경쟁원리에 입각한 농가단위로 이루어지되, 이 과정에서 농가단위로 채택/체화된 명시적/암묵적 지식이 내생적 영농조직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학습의 결과, 커뮤니티 단위의 기술혁신 창출-차별화/경쟁력 확보-개별 농가 소득증대-조합원간의 신뢰 강화에 기초한 영농조직의 활성화라는 순순환 고리가 형성됨으로서 경쟁력은 강화/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순순환 고리가 형성/발전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지역단위의 혁신시스템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그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개별 농가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한시적인 금융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이노베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으로나 새

마을 운동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 농촌사회에 뿌리 내려진 내생적 조직을 활성화하여 구성원간의 네트워킹화로 집단학습과 실행을 통하여 하나의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사회제도적 기반이 조성/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미 감과 복숭아 산지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청도군의 경우에는 “놀미리 복숭아 작목회”를 하나의 “기술혁신 엔클라베(innovation enclave)”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를 통하여 명시적 지식의 도입과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동시에 군내 타 과수재배 지역에도 “놀미리 복숭아 작목회”와 같은 영농조직을 활성화하고, 각 영농조직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은 철저하게 지역사회에 기초한 영농조직 단위의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정책지원에 대한 영농조직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와 차후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나라 농촌 주민들에게는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암묵적 지식으로 체화되어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자 한다.

註

- 1) 진화론적 경제학자들은 기술혁신을 신기술의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 소화, 사용 및 변용시키고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 2) 최근에 실시된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김동원 외, 2001)에 의하면 우리 나라 농민의 절반 이상은 농촌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못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의 농촌 생활에 대해서도 65% 이상이 현재보다 더 낙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지만 농가 수익과 농가경제는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 3) 6월 23일의 본 조사에는 “지리조사 및 실습” 과목을 이수 중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학년 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20여명이 참가하였다.
- 4) 놀미(訥彌)란 지명은 구룡성 평지인 마을의 형상이 멀리서 보면 ‘누운 산’과 같아서 ‘누운 뫼(산)’, ‘놀뫼’

- 로 불렀는데, '눌피'가 '눌미'로 발음되어 1916년 행정 구역 변경 때 訥彌里로 표기하였다(청도문화원, 1996, 마을지명 유래지).
- 5) 2000년 말 현재 대지와 도로 등을 제외한 논과 밭, 임야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화양읍은 전체 토지 32,822,537m² 중에서 임야가 66.4%(21,787,336m²)로 가장 많고 논 25.1%(8,235,028m²), 밭 8.5%(2,800,173m²)의 순이다. 반면 눌미리는 전체 토지(578,272m²) 중에서 논이 64.9%(375,431m²)로 가장 많고 밭이 35.0%(202,183m²)인데 비해 임야는 0.1%(658m²)에 불과하다.
 - 6) 1995년 현재(농업총조사, 1995) 경상북도의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1.05ha인데 비해, 청도군은 0.92ha, 화양읍은 0.98ha이다. 청도군의 평균 경영규모가 작은 것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농가 수(경북의 4.1%)에 비해 경지면적(경북의 3.6%)이 적기 때문인데, 화양읍은 남산(南山)의 선상지에서 비롯된 구릉지가 청도전반까지 연결되면서 청도군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지면적이 크다.
 - 7) 60세 이상의 전직 한 3가구는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적응에 실패하여 30년 전에 귀농한 가구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30년 전에 귀농한 가구, 그리고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18년 전 부인과 함께 처가 동네로 귀향한 한 가구이다.
 - 8) 다른 지역에서 눌미리로 이주한 5농가 경영주의 고향은 청도군(운문면 2농가, 매전면 1농가) 3농가, 밀양군(상동면) 1농가, 부산광역시 1농가이다. 공무원을 정년 퇴직한 후 부산광역시에서 18년 전 사례지역으로 이주한 1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4농가의 경영주는 모두가 이주한 지 30년을 넘고 있으며, 이들은 사례지역과 가까운 고향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던 부친을 따라 사례지역으로 이주하였다.
 - 9) 복숭아 재배 임차지 8,800평 중에서 임대인이 사례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이농한 농가로부터 임차한 복숭아 재배지가 1,800평이며 나머지는 다른 동네에 거주하거나 외지인 소유의 임야를 수십년 전부터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임차, 경영하고 있다.
 - 10) 한 사례농가 경영주(60세)에 따르면 가족 노동력 위주로 과수재배를 하는 현실에서 복숭아 재배지역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체로 복숭아 재배가 대추 재배보다는 수익성에서 다소 유리하지만 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3-4년 전에는 오히려 대추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또한 무엇보다 복숭아에 비해서 대추나 감은 노동력의 투입이 적다. 그래서 복숭아 재배를 위주로 하면서 대추를 심고 있다.
 - 11) 사례농가 중에서 유일한 30대 경영주는 올해 38세이며 조모(85세)와 어머니(60세) 및 처(36세)와 3명의 자녀(8세, 7세, 6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9년에 영농후계자로 지정되었으며 농업 노동력은 주로 본인 과 처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본인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1985년에 논에서 복숭아 재배로 전환한 2,000평의 과수원과 500평의 대추 재배를 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사과밭에서 전환한 1,000평을 시설재배하고 있는데 모두 자경지이다. 미작재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작재배가 과수재배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이며, 소득증대를 위해 과수재배와 시설재배를 하면서 농가 소비용 쌀을 매입하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 12)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미작재배가 없는 농가는 처가 대구에 거주하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본인 혼자 1,400평의 과수를 재배하는 53세 경영주, 900평의 과수는 자경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미작 재배지 700평은 임대하는 68세 경영주, 1,700평의 과수원은 자경하면서 본인의 다리 부상으로 1,200평의 미작 재배지를 임대한 65세 경영주, 그리고 공무원을 정년퇴직 후 18년 전 처가동네인 사례지역으로 이주하여 1,280평의 과수를 재배하는 74세 경영주이다.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들 외의 경영주들은 농촌에 살면서 어떻게 논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는냐고 응답하고 있다.
 - 13) 눌미리 태생으로 사례지역에서 최초로 복숭아 재배를 시작한 강창덕(60세)씨는 현재 눌미리 복숭아 작목반장과 경북 복숭아 연구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농업부문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과정에서 복숭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강창덕 작목반장과 심층 면담은 본 논문의 전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분의 열정과 협조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 14) 자급적 농업을 유지했던 과거에는 미작재배가 농업 활동의 중심이었고, 특히 복숭아는 재배조건에서 배수가 중요한 요인이므로 주로 경사지인 산지를 이용해서 재배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는 미작재배보다 과수의 수익성이 높았고,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가뭄시 용수공급이 용이하고 관리 및 작업이 용이한 평지에서의 복숭아 재배를 선호하고 있다.
 - 15) 사례지역에서 대부분의 복숭아 과수원은 자경지를 중심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임차료 부담이 없으며, 용수공급은 하천변의 지하 관정을 주로 이용하고 묘목 구입은 자급자족하므로 과수 농업과 관련한 기반조성 경비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농약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300평의 복숭아 재배를 기준으로 영농비 지출의 부문별 내역(강창덕, 60세)을 보면, 퇴비 9만원(4,500원×20포), 정부지원금 제외한 비료대 3~4만원(6,000원×5~7포, 정부지원금 포대당 2,000원은 제외), 인건비 30만원(10일×3만원), 농약대 21만원(30,000원×7회)

등을 포함하면 총 64만원 정도가 된다.

- 16) 현재의 과수재배와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노동력 부족(12농가)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수익성 악화(4농가)와 가격불안정(4농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1농가는 출하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본인의 출하 상품이 낮은 평가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8월 23일의 선과작업 중에는 한 농가의 상품 색상에 대한 다른 작목반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출하자는 이를 수긍하였다.
- 17) 암묵적 지식이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잘 정의되기 어렵고 기호화되거나 문서화되지 않으며, 개인·집단에 특수한 형태의 지식으로서 관계집단 간에 상당한 정도 공유되는 지식을 말한다.

文獻

김기혁 역, 1999, 서유럽의 농업변화, 한울아카데미 (I.R.Bowler, 1996, *Agricultural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동원·조태희, 2001,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 *농촌경제*, 24(1), 81-103.

박경·박진도·강용찬, 2000, 지역혁신 능력과 지역 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론의 의의, 과제 그리고 정책적 함의-, *공간과 사회*, 13, 12-45.

박양춘·우종현, 2001, 대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가 특성과 시설농가의 경영규모 변화 -대구광역시 문산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1), 21-34.

서찬기, 1988, 한국농업의 지역집중과 지역구조의 변화: 1960~1980, *경북대 사대 교육연구지*, 30, 69-105.

우종현, 1997, 임대차농지의 분포변화와 요인,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 32(2), 41-58.

이두순·박현태·박기환, 1997, 농산물 공동출하와 지역농업의 구조개선 -둔내농협의 공동출하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20(3), 67-85.

이철우·강현수·박경, 2000, 우리나라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 -대전과 창원지역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13, 46-93.

전창근, 1997, 유럽 청과물 유통체계 분석, *농촌경제*, 20(3), 107-126.

청도문화원, 1996, 마을지명 유래지.

허길행, 1997, 청과물 산지유통 개선방안 연구, *농촌경제*, 20(3), 49-65.

Florida, R., 1995, *Toward the learning region, Futures*, 27, 527-536.

Foray, D. and Lundvall, B. A., 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from the economics of knowledge to the learning economy*, in OECD (ed), *Employment and Growth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OECD.

Lee, J. H., 2001, *Geographies of learning reconsidered: what are the source of learning*, mimeo,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Durham, UK.

Lundvall, B-A., 1996, *The social dimension of the learning economy*, Danish Research Unit for Industrial Dynamics (DRUID), Aalborg University, Working Paper 96-1.

Morgan, K. and Murdoch, J. 2000, *Organic vs. conventional agriculture: knowledge, power and innovation in the food chain, Geoforum*, 31(2), 159-173.

Production-Distribution System in a Fruit-Growing Farming Community and the Role of a Community-Based Endogenous Farming Organization : the Case of Nulmi-Ri, Chungdo-Kun, Kyongbuk Province

Jong Hyeon Woo* · Soon Ho Park**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ole played by the endogenous farming organization in sustaining rural community's competitiveness. Nulmi-Ri, Chungdo Kun in Kyongsangbuk-do chosen as a case study area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competitive rural communities, making a living with a peach farming. This community maintains its competitiveness by operating a community-based farming organization which was organised in an endogenous way. Most of individual farmers in this community belong to the farming organization and they have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the processe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this respect, the

exchange and circulation of knowledge, and collective learning, tend to be significantly taken place between the organization member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Nulmi-Ri's endogenous farming organization, we propose some constructive comments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Key words : knowledge-based economy, fruit-growing farming, production-distribution system, endogenous farming organization, innovation

(2001년 10월 15일 접수)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wjh8694@yahoo.co.kr)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hpark@taegu-e.ac.kr)